

# 20년만에 시력 되찾은 60代 “업꾼 치란” 연발

〈고맙습니다〉

##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찾은 조선대병원 의료봉사단

### 이틀간 주민 1062명 진료

“업꾼 치란, 업꾼 치란”

지난 5일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현지 주민인 콩 오에맘(여·65)씨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 연신 “고맙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의 한쪽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다.

20여 년 동안 잃었던 시력을 다시 찾아준 조선대병원 의료진에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의 감사 표시뿐이었다. 지난 4~5일 캄보디아 캄퐁스푸주(州)에 소재한 광주진료소에는 오에맘씨와 같은 캄보디아 현지 주민들의 감사 인사로 넘쳐났다.

소화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마취 통증의학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치과 등 총 8개 진료과목에 40여 명의 의료팀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조선대 의료봉사단이 광주진료소에서 펼친 봉사나눔의 ‘인술(仁術)’은 현지 주민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특히 진료 과목별로 박찬국(소화기 내과) 부원장 등 조선대병원 최정삼급 교수진



조선대병원 정형외과 이준영 교수가 지난 5일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수술실에서 현지 주민의 무릎에서 농양 제거를 하고 있다. 뒤로는 조선대병원 김대현 교수가 현지 주민의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 직접 수술과 진료를 맡았다. 여기에 간호사와 약사 또한 ‘베테랑급’ 스텝이 참여, 최고의 인술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첨단 위내시경 장비와 초음파 장비, 안과 수술장비까지 광주에서 ‘공수’됐고, 환자 접수에서 진료, 검진, 약제에 이르기까지 종합병원 시스템 그대로였다.

이 때문에 많은 현지 주민들이 난생 처음 유방암과 갑상선암, 복부질환 등에 대

해 검진을 받는 등 최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혜택’을 누렸고, 이틀간 진료 환자 수는 무려 1062명에 달했다.

진료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지만, 봉사단은 밀려드는 환자를 한 명이라도 더 진료하기 위해 현지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하는 등 강행군을 펼쳤다.

김대현 안과 교수와 서정성 아이안과 원장, 임동권 문산제일안과 원장으로 구성

된 안과팀은 이틀간 백내장·약성종양 질환이 있는 콩 오에맘씨 등 22명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쳐 이들에게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줬다.

이준영 교수 등 정형외과팀은 농양 제거 및 화상 후 부스럼까지 제거수술을 진행했으며, 유영선 교수 등 외과팀은 초음파를 이용해 암진단을 맡았다. 노영일 교수 등 소아청소년과팀과 안태훈 교수 등 마취 통증의학과팀은 환자들이 풀러들면서 자리를 한 순간도 뜨지 못했다.

봉사단장 자격으로 참여한 의료진 중 최고령인 박찬국 부원장은 술선수범하며 가장 많은 250여 명의 내과 환자를 진료해 후배 의사들에게 찬사를 받기도 했다.

특히 이번 봉사단에 김종경 조선대 미술대학장이 서울 등지에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자신들의 제자 4명과 함께 광주진료소에 ‘새 옷’을 입히는 벽화 제작을 벌여 많은 주민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임동훈 조선대병원 대외협력실장은 “봉사단원 모두가 평소 업무처럼 진지하고 밝은 모습으로 봉사에 임한 것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자랑했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중증 환자 2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수술을 해주는 것을 계획중이다. /캄보디아=최권일기자 cki@

##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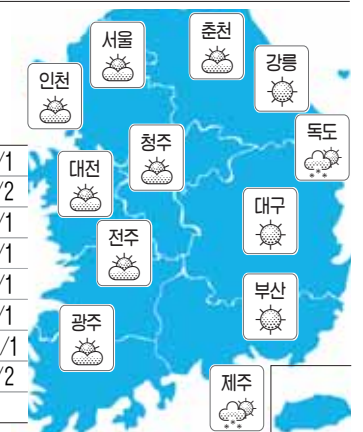
해돋이 07:25 | 해질 22:57  
해진 18:08 | 달질 09:57

### 올들어 가장 춥다

가끔 구름이 많고 서해안에는 새벽 한때 눈 내리는 곳 있었다.

### 지역별 날씨 (°C)

광주	구름많음	-8/1	보성	구름많음	-8/1
목포	눈온뒤 맑음	-7/1	순천	맑음	-7/2
여수	맑음	-7/2	영광	구름많음	-9/1
나주	구름많음	-10/2	진도	눈온뒤 맑음	-6/1
완도	구름많음	-7/1	전주	구름많음	-9/1
구례	구름많음	-10/1	군산	구름많음	-9/1
강진	구름많음	-7/0	남원	구름많음	-12/1
해남	구름많음	-7/1	홍산도	눈온뒤 맑음	-3/2
장성	구름많음	-9/1			



### 비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서	북서	2.0~3.0	서	북서	1.0~2.0
남부	남서	북서	2.0~4.0	서	북서	1.5~2.5
남해	남서	북서	2.0~3.0	서	북서	0.5~1.5
서부	남서	북서	3.0~6.0	서	북서	1.5~2.5
면바다(서)	북서	북서	3.0~4.0	서	북서	1.0~2.0

### 생활지수

동파	35
운동	10
빨래	70

###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5:04	10:18
	17:19	22:39
여수	12:03	05:48
	00:06	18:02

### 주간 날씨

10(화)	11(수)	12(목)	13(금)	14(토)	15(일)	16(월)
☀	☀	☀	☀	☀	☀	☀
-2/9	0/9	-2/7	-2/7	-1/10	0/10	1/9

## 오늘까지 ‘칼바람’...광주·전남 영하권 ‘덜덜’

광주와 전남은 9일 수은주가 푹 떨어진다. 칼바람까지 부는 등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9일 광주·전남지역은 중국 북부지방의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강풍과 함께 올 겨울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고 8일 예보했다.

9일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서해안 일부 지역엔 새벽 한때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영하 6도, 낮 최고기온은 0도~영상 3도 분포를 보이겠다.

이는 평년보다 5~6도가량 낮은 것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기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7도~11도로 점차 평년기온을 회복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시베리아에 쌓인 눈으로 차가워진 대륙 고기압이 북서풍을 타고 남하하면서 한파를 몰고 왔다”며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 수도관 동파 등 대비가 필요하다” 말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영하 6도, 낮 최고기온은 0도~영상 3도 분포를 보이겠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세월호 참사 4·16 가족협의회가 꾸린 도보행진단과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8일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시민문화제를 열고 ‘세월호 온전한 선체인양’을 촉구하며 강강수월래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세월호 가족 도보행진단’ 광주서 진상 규명 촉구

“가라앉은 진실을 규명하라,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세월호 참사 4·16 가족협의회가 꾸린 도보행진단이 8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 세월호 선체 인양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행진에 돌입했다.

도보행진단은 이날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옛 전남도청)에서 ‘참사 300일 진실마중 한마당’을 열고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을 촉구했다. 도보행진에는 20여명의 단원과 생존 학

생들과 유가족, 세월호 광주시민상주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200여명이 참가했다.

세월호 가족들은 지난달 26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정부합동분향소를 출발, 안산~팽목항 릴레이 도보 행진 중이다. 이들은 이날 광주에 도착해 5·18 묘역~무등도서관~광주역~금남공원~5·18 민주광장~유동4거리~서구청~김대중센터역~5·18 교육관 코스를 행진했다.

9일에는 광주시 서구 김대중 컨벤션 앞에서 세월호 참사 300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광주공약역~송정역~동곡파출소~본덕IC~석현3거리~나주농협공판장~나주 남교로 코스로 행진한다. 도보행진단은 오는 14일 진도군 팽목항에 도착, 마지막 일정으로 문화제를 진행하며 19박 20일 동안의 행진 일정에 마침표를 찍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고교생이 렌터카 운전...광양서 5명 사상

광양에서 졸업을 앞둔 고교생이 몰던 렌터카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아 2명이 숨지는 등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8일 새벽 1시10분께 광양시 광양읍 광양초등학교 인근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정모(19)군이 몰던 소나타 승용차가 가로수와 전신주를 들이받아 들이받은 뒤 2m아래 논두렁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정군과 뒷좌석에 있던 박모(19)군이

숨졌고 임모(여·18)양 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인 정모군은 친구의 이름으로 렌터카를 빌려 연습면허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출발 전 맥주를 마셨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안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i4079@

2000만 원

# 부동산 담보대출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근린상가  
단독주택  
나대지  
원룸

담보 비율 : 최대 70%  
최저 연 3.8%~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연금수급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 최대 5년  
연금리 : 최저 7.0%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옆)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